

보도시점

2024. 4. 29.(월) 09:20

배포

2024. 4. 29.(월) 09:20

말라위 관개사업 설계·시공감리 용역사업 수주

- 국내·외 기업과 함께 'KRC컨소시엄' 구성 .. 민간기업 해외 진출 저변 확대 -

한국농어촌공사는 29일 우수한 케이(K)-농공 기술력을 토대로 말라위 정부가 발주한 「중규모 관개사업 설계 및 시공감리 용역사업」을 성공적으로 수주계약 체결하며, 민간 기업들의 해외 진출 지원 확대를 비롯해 해외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식량 증산, 소득증대 등을 목적으로 말라위 쉬레강 중·상류 5개 지역을 대상으로 7개 지구(약 6,100ha)에 댐·하천보와 같은 수원공과 관개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공사는 이번 수주를 위해 국내기업인 (주)다산건설턴트와 말라위 현지 기업인 L-Gravam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하였고, 호주의 SMEC, 그리스의 A&Z 등 8개 업체와의 경쟁을 뚫고 최종 선정되었다.

계약체결에 따라 'KRC컨소시엄'은 관개시설 건설에 대한 타당성조사·세부설계·시공감리 용역을 맡아 수행하며, 이번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경우 약 24억 원 규모의 국내기업 참여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태선 기반사업이사는 “이번 수주는 공사가 국내기업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해외 무대에서 농업생산기반 구축 분야에서 선도적인 소임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음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다.”라며 “지속적인 민간 협력을 통해 대한민국의 우수한 K-농공기술 전파와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공사는 1967년 베트남에 ‘주월한국농업사절단’ 파견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아시아·아프리카·중남미 등 35개국에서 166개 해외기술용역사업을 통해 2,983억 원 규모의 해외 수주계약을 체결한데 이어 2024년에도 182억 원 규모의 해외기술용역사업 수주가 기대되는 상황이라 밝혔다.

담당 부서	글로벌사업처 글로벌사업부	책임자	부 장	남호성 (061-338-5219)
		담당자	대 리	박정선 (061-338-6453)